중 국

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, 전국 성급 방송기관과 저작권 협력 체결

2026. 08. 19.
국제협력팀
중국사무소

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(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, 이하 '음집협')는 2026년 7월 31일 베이징에서 전국 성(省)급 방송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녹음제품의 방송 이용 및 사용료 지급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저작권 협력 체결식 및 특별 좌담회를 개최함.

○ 음집협-방송기관 간 저작권 협력 확대

2021년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녹음제작자에게 녹음제품의 방송·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방송업계의 녹음제품 이용에 관한 저작권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, 음집협은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이 방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현재까지 18개 방송기관과 협력 의향을 확인하였음. 이번 행사에는 16개 성(省)급 방송기관이 참석해 이 가운데 10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법 제45조 시행 5년 이래 전국 방송업계와 음상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 중 범위가 가장 넓고 규모가 가장 큰 저작권 협력사례로 볼 수 있음.

○ 방송분야 저작권 집중관리 강화

특별 좌담회를 통해 음집협은 정부 관리부서, 전문가·학계, 음악산업계, 방송기관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계자와 함께 방송업계의 녹음제품 적법 이용과 저작권 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함.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방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허락의 분산, 불명확한 권리·의무 관계, 미비한 사용료 지급체계 및 빈번한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, 권리자와 방송기관 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상호 이익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 방송업계의 저작권 준법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모범사례를 마련함.

■ 참고자료

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 (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)
- https://mp.weixin.qq.com/s/qztWNvWQYfI2TIt6J9vNdA